

원앙이

学名 *Aix Galericulata*
英名 Mandarin Duck



한적한 산간계류를 따라 산행을 하다 보면 웅덩이에서 힘차게 솟아 오르는 물오리를 만날수 있는데 바로 이새가 원앙이이다.

이 원앙이는 낙엽지는 11월부터 짝을 짓기 시작하여 대개 한쌍씩 단독생활을 즐기면서 밀회를 즐긴다.

때로는 큰 개천이나 호반의 기슭, 강이나 바다, 물있는 곳이면 군집을 이루기도 하고 다른 종류의 물오리떼와 무리를 짓기도 한다.

여러 종류의 새와는 달리 한쌍씩 행동 하는것은 번식기가 아닌 가을부터 사랑을 확인하면서 긴 연애기간을 갖기 때문에 다정한 부부를 원앙같은 부부라고도 부른다.

이새의 분포는 아무르 중앙부에서 우수리지방 만주, 중국, 일본을 포함한 우리나라에 이르는데 예전에는 단순한 겨울철 새로만 믿어왔으나 현재는 경기도 광릉내, 설악산, 무주구천동등등 전국 도처의 산림지대에서 번식하는 개체가 발견되기 시작하여 확실한 텃새가 되었다.

아름답기 그지없는 숫 원앙은 날개에 수직으로 박힌 감색의 두가닥 은행잎 형의 장식깃은 특징적이나 암컷은 회갈색으로 보잘것 없는 평범한 색이다.

글·사진 李正雨 (鳥類研究家)

번식기인 4월에서 7월이 지나면 여름깃으로 바뀌어 숫컷도 암컷과 같은 회갈색으로 변하여 자웅을 가릴수 없는 동일한 깃털이 되었다가 9, 10월이 되면 완전히 다른 본래의 색깔로 털갈이를 한다.

번식은 원시상태의 인적드문 산림지대의 수동에 다 하는데 산좌에는 반드시 암컷이 앞가슴 털을 스스로 뽑아 폭신한 알자리를 만들어 산란하고 한배에 10여개 내외의 알을 낳아 주로 암컷이 품어 어린새를 부화한다.

포란기간은 28일에서 한달정도 걸리고 일단부화된 어린병아리는 천적이 두려워서 인지 10여 미터의 높은 등지에서 물이나 물로 뛰어내려 어미를 따라 적응력을 기른다.

어린병아리가 그 높은곳에서 뛰어 내려도 다치지 않는것은 솜털때문이지만 뺏빳한 깃털이 유지되어 탄력성이 있기때문이고 일단 지상에 내린 병아리는 천부적인 은실술로 묘하게도 생존의 방법을 익히며 살아간다.

먹이는 수서곤충, 연체동물, 풀씨, 잎, 뿌리, 열매따위를 먹는 잡식성이나 서두에 적은 산간 계류의 웅덩이에 앉기 좋아하는 것은 물길을 따라 흘러온 도도리가 웅덩이에 모이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20여년전 국내에도 가금화된 원앙이가 상당수 수입되어 현재도 사육하에서 번식되고 있는데, 금사를 탈출한 개체들 중에는 이미 야생화된 것이흔히있다. 그래서 도심의 공원내 연못에 내리기도 한다.

이들 야생화된 것들은 야생종과의 결합도 불기 피하여 혈통갱신의 기회가 주어져 번식 성적이 좋아질 전망이다.

원앙이의 부부에는 고전에도 많은 기록들이 있으나 한번 부부의 인연이된 개체가 백년해로하는지는 사실, 실험적 증거가 없으나 일반적 사육조류에 있어서는 자신이 선택한 자유연애이기 때문에 거의 백년해로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는 점차 그 숫자가 줄어드는 현상을 염려하여 1982년 천연기념물 제327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